

부동산개발자금(PF) 대출 전문은행  
**동양저축은행**  
 10621226-0180

VIP 2011 생로병사... 영수증 www.dhckk.com  
**생존년의 연인,**  
**엄앵란이 빛이납니다.**  
 대표강담현호... 장영환  
 광주지나 0621226-3222

**光州日報와 함께 행복한 주말을**

**Weather**  
 광주·전남 휴일 날씨  
 1(土) 2(日)  
 흐리고 비 22 / 25℃ 비온뒤 맑 22 / 28℃

**News**

- 高 신안군수 당선 무효형 ②
- 만학열기 후끈 '광주학당' ③
- 교육위원 불법선거 기승 ④
- 중고차, 장마철에 사라 ⑤

**Jeollado**

- 풍수·완도의 대혈들 ⑦

**Books**

- 백수, 책에서 구원을 얻다 ⑩
- 中 황제 6명의 내면 세계 ⑪

**Wellbeing**

- 식품 집중 탐구 부추 ⑬

**Sports**

- 월드컵 8강 관전 포인트 ⑱
- 다시 뛰자! 한국 축구 ⑲

## 전신마비 중증장애인 박복희씨의 '소망 여행'

# “제주바다에서 희망 봤어요”

광주 기독교병원 268호 병실, 서른살 처녀 박복희씨의 희망이 4년째 정지된 곳이다. 그녀는 뇌성마비에 강직형 사지마비라는 희귀병이 겹치면서 혼자서는 목 조차 제대로 가눌 수 없는 중환자다.

누워있는 시간이 훨씬 많았던 4년간 그녀를 지켜준 것은 침대 위 천장에 붙어있는 2장의 바다 사진. 사진에는 어린 시절 고향 보성에서 보았던, 이제는 기억도 가물가물한 바다에 대한 그녀의 그리움이 절절히 배어 있다. 그녀에게 바다는 잃어버린 희망과 꿈의 보고였다.

시원한 바다를 보고 싶었던 박씨의 꿈이 드디어 이뤄졌다. 지난 2002년 병원에 입원한 이후 4년만에 제주도로 바다 여행을 떠난 것이다. 광주 기독교병원 의사, 간호사들은 '아름다운 나눔 장터'를 열어 얻은 수익금을 박씨의 바다 여행 경비로 내놓았다. 여행에는 박씨와 간병인 고민영씨, 물리치료사 이영진씨가 동행했다. 아시아나 항공은 항공권을 무료로 제공했다.

지난달 28일 오전 10시15분, 광주발 제주행 비행기에 오른 박씨는 가장 먼저 여미지 식물원을 관람하고 천지연 폭포를 찾았다. 그리고 주상



지난달 28일 강직형 사지마비를 앓고 있는 박복희(30)씨가 간병인 고민영(58)씨와 함께 제주도 주상절리를 찾았다. 박씨는 4년만의 비탈 나들이에 하루종일 들떠 있었다.

## 병실천장에 바다사진 붙이고 그리움 키워 광주기독교병원, 나눔장터 열어 경비 지원 '4년만의 외출' 삶의 새로운 활력 찾아

절리에 도착했다.

“이모(간병인 고씨에게). 막힌 가슴이 탁 트이는 것 같아.” 끝도 없이 이어지지만 할 것 같은 제주도 바다를 바라보며 박씨가 말했다. 그녀는 “오후 8시 예정인 광주행 비행기가 고장났으면 좋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제주도 바다에 흠뻑 빠져들었다.

박씨는 걸을 수도, 손으로 물건을 집을 수도 없다. 원래 뇌성마비를 가지고 있었던 데다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15살까지 집에만 누워 있어야 했다. 15살 때야 겨우 특수학교에 입학했고 21살에는 일반 중학교에, 24살에는 고등학교에 들어갔다. 공부는 힘들었지만 '사회복지사'가 되겠다는 목표로 대학 입학도 꿈꿨다.

그러다 4년 전 원인 모를 기침과 손발 저림이 찾아오더니 전신마비의 고통이 시작했다. 박씨는 모진 운명에 마사지 기계 전선을 입에 물고 자살을 시도할 정도로 좌절했다.

간병인 고민영(여·58)씨를 만난 것이 그 무렵이다. 고씨 역시 한쪽 다리를 못쓰는 남편을 간병해야 할 처지이지만 피 한방울 섞이지 않은 박씨를 무료로 간병하며 식사·목욕 등을 돕고 있다. 박씨가 대변을 못 볼 때, 손가락을 집어넣어 파내줄 정도로 고씨의 간병은 헌신적이다.

고씨의 헌신에 박씨도 희망의 씨앗을 키워왔다. 바다 여행과 함께 박씨의 생을 지탱하는 것은 시,

박씨가 말하면 간병인 고씨가 받아적는 식으로 시도 여러 편 썼다. 간단한 단어를 말하는 것도 온 몸을 뒤틀어야 하기 때문에 부르는 사람도, 받아 적는 사람도 쉬운 일이 아니다.

고씨는 “어쩔 땐 친자식보다 소중한 느낌이 든다”며 “단 5분이라도 복희의 꿈이 이루어져 인터넷 강의를 들으며 사이버 대학이라도 다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씨는 손으로 자판조차 두드릴 수 없다. 최근에는 더 심해지는 신경성 통증으로 밤잠을 설친다. 고통이 매섭게 몰아치던 어느 날, 고철압으로 쓰러진 어머니를 떠올리며 쓴 박씨의 시다.

‘한 순간만 고개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면 / 입으로 컴퓨터를 치고 싶습니다/ 한 순간만 손을 쓸 수 있다면 / 어머니 기저귀를 갈아드리고 싶습니다...(중략) / 한 순간만 걸을 수 있다면 / 어려운 사람들에게 튼튼한 기둥이 되고 싶습니다’ (박복희씨의 시 ‘한 순간만’ 중 일부)

/서민정기자 viola@kwangju.co.kr

## 서민주택 재산세 부담 줄인다

黨政 “3억이하 5%·6억이하 10%내 증가 억제”

정부는 30일 주택공시가격 인상을 인한 서민·중산층의 재산세 증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재산세 부담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취득세와 등록세 등 거래세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도 조만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여의도 한 호텔에서 열린우리당과 긴급 당정회의를 열어 이 같이 합의하고, 이용섭 행정자치부 장관을 통해 당정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용섭 장관은 당정회의 직후 정부 종합청사 제1브리핑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

택에 대해 재산세 상승률이 전년도 재산세의 5%를 넘지 않도록 하고 공시가격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전년도 재산세의 10%를 넘지 않도록 상승률을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현행 재산세 상승률 상한기준이 50%임을 감안할 때 서민주택에 대한 대폭적인 세부담 완화조치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당정은 또 9월 정기국회에서 지방세법 일부 개정을 통해 이번 당정간 합의 내용이 올해 재산세부터 소급적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 김진표 교육부총리 사의표명

후임 김병준씨 유력...경제부총리 권오규씨 물망

靑, 내주초 3개 부처 개각 유력하며, 후임 예산처 장관에는 장병완 기획예산처 차관을 승진·기용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 학교급식 식중독 파문 등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한덕수 경제부총리도 오래 근무한 데다 최근 재경부가 연관된 잇단 사건들을 계기로 분위기 쇠신을 위한 인사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지난주 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권오규 정책실장의 이등에 따른 후임에는 변양규 기획예산처 장관이

**오늘밤의 월드컵 (8강)**

<1일>

독일	아르헨티나
베를린 00:00/KBS2·MBC·KBC	부에노스아이레스 00:00/KBS2·MBC·KBC
이탈리아	우크라이나
밀라노 04:00/KBS2·MBC·KBC	키예프 04:00/KBS2·MBC·KBC

<2일>

잉글랜드	포르투갈
맨체스터 00:00/KBS2·MBC·KBC	리스본 00:00/KBS2·MBC·KBC
브라질	프랑스
브라질리아 04:00/KBS2·MBC·KBC	파리 04:00/KBS2·MBC·KBC

총합학원 창학 56년 역사와 전통

광주에서 새로운 명문교육을 시작하다

**남부대학교**  
<http://www.nam.ac.kr>  
 ▶ 남부캠퍼스 062-970-0111 ▶ T.1062-970-0100

새로운 탐사기는 대학

**전남과학대학**  
<http://www.chunnam.ac.kr>  
 ▶ 영암캠퍼스 062-955-2951 ▶ T.1061-360-5000

**제51회 호남예술제 최고상 작품 발표회**  
 내일(일) 오후3시 광주문예회관 소극장  
 ▶ http://www.kwangju.co.kr ▶ 전화 : 10621220-0541

30대여성 80% 만족한 피부 미백 성분

**이번만큼은 후회없이**  
**답화이트닝**

IOPE

IOPE